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금낭화를 만나는 행운

프랑스 파리 북서쪽에 위치한 불로뉴 숲에서 이 글을 씀다. 어제는 숲의 북쪽에 위치한 바가텔 공원, 오늘은 남쪽의 오페아 온실에 다녀왔다. 루이 15세 시절 지어진 오페아 온실에는 세계에서 수집한 선인장, 양치식물, 소철류, 난과 식물 그리고 몬스테라와 같은 관엽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온실 앞 프랑스식 정원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 원산의 식물도 있다.

내가 온실을 구경하고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정원 한 구역에 모여 열심히 사진을 찍는 게 눈에 띄었다.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모두의 시선 끝에는 금낭화가 있었다.

사실 나는 금낭화의 존재보다는 이 식물을 향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놀라웠다. 금낭화는 내게 너무나 익숙한 식물이다. 파리에 오기 직전까지 한국의 화단, 정원에서 금낭화를 수없이 보았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에게 금낭화는 저 먼 아시아의 식물, 특별하고 희귀한 형태의 풀로 느껴지는 듯했다. 내가 프랑스에 자생하는 고산 식물을 신기해하듯이 말이다.

금낭화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아시아의 식물이 이곳 프랑스 정원에 오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원예가 로버트 포춘 때문이다. 그는 중국의 차 재배 기술을 훔친 산업 스파이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중국에서 훔친 차나무 재배 기술로 영국은 인도에서 차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는 차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국인으로 위장까지 한 걸로 알려진다.

그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은 차 재배 기술만은 아니었다. 유럽 정원에 심을 중국 자생 식물을 수집했고, 그중에는 금낭화가 있었다. 그의 노력은 쇠고비, 좁사철나무, 중국남천, 구골목서, 무늬사사, 운금만병초, 당종려 등의 학명에 새겨진 'fortunei'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금낭화'는 복주머니와 비슷하게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4월 긴 꽃줄기에서 열 개 이상의 분홍색 꽃이 피어난다. 서양에서는 이 꽃이 피를 흘리는 심장과 같다고 '블리딩 하트'라는 영명으로 부른다. 금낭화 꽃은 본래 분홍색이지만 다홍색 꽃, 흰 꽃을 피우는 품종도 볼 수 있다. 오페아 공원에서 만난 금낭화 역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홍색 꽃이었다.

정원의 금낭화 한 개체와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완주 대아수목원에서 만났던 너른 금낭화 군락을 떠올렸다. 수많은 개체가 금낭화 꽃밭을 이루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 동료들은 금낭화를 보고 이토록 감동하지 않았다. '금낭화쯤은 흔하니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나는 일상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일상에서 함께 했던 한국의 자생 식물을 떠올리고 있다. 프랑스에 오기 전에는 독일 뮌헨식물원에서 분꽃나무를 만났다. 원래 중심에서 떨어진 들에는 분꽃나무 한 그루와 이름표가 걸려 있었고, 이름표에는 '코리아, 재팬'이라는 원산지명이 쓰여 있었다. 나는 분꽃나무 향기를 맡기 위해 코를 킁크 냈다. 한국에서는 백미터 밖 거리에서도 향이 강하게 났으나, 아무리 꽃에 가까이 다가가도 이 분꽃나무에서는 향이 전혀 나지 않았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담당자에게 물으니 본인은 내가 설명하는 분꽃나무의 진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다며, 식물의 향기 강도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곳 개체는 자생지인 한국의 것보다 향이 열게 나는 것 같다고 했다. 순간 한국에서 내게 진한 꽃 향을 전해준 분꽃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떠올랐다.

재배 식물의 보고인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사람들, 희귀한 호주 식물들을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호주 친구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누리는 일상 속 자연으로 받은 혜택에 관해서는 까맣게 잊은 채. 내가 한국에 갈 즈음엔 금낭화의 꽃이다 지고 난 뒤겠지만 앞으로 드러닐 잎과 열매, 씨앗을 만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금낭화의 꽃이 진 자리에는 검은 씨앗이 들어 있는 녹색 열매가 자리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걸 식물의 생애를 보는 행운을 갖는 것임을 한 번 깨닫는다.

<식물 세물화기>

의료칼럼

성장 호르몬 치료



임인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

내로 키가 작은 상태이다. 그리고 표준 키에 비해 10cm 이상 작거나 3-10세의 어린이가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던 저신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저신장이 의심되면 신체 계측과 사춘기 발현 정도, 부모의 키, 성장 패턴을 파악한다. 엑스레이(X-ray) 검사로 골 연령을 측정하며 전신 질환 유무 확인을 위해 혈액 검사, 소변 검사도 시행한다. 필요하다면 염색체 검사, 특정 질환 유전자 검사,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 뇌 MRI 등을 병행한다.

저신장의 검증된 치료법은 성장 호르몬 투약 주사 치료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보통 주 6-7회씩 수면 전에 자가 주사하는데, 1-3개월에 1회 병원을 방문해 경과를 살핀다. 병적 원인이 있다면 만 2세부터 치료를 시행하고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투약한다. 성장판이 닫히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골 연령이 어릴수록, 치료 기간이 길수록, 치료 시작 때 키와 부모 중간 키가 클수록, 치료 첫 해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효과는 높다.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는 비용 부담이 큰 것이 단점인데 성장 호르몬 결핍 같은 병적 저신장이 확인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염색체 이상에 의한 터너 증후군과 프레더럴리 증후군, 누난 증후군 및 임신 기간에 비해 작게 태어난 부랑 경량아, 만성 신부전도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보험 급여는 골 연령이 여자 14-15세, 남자 15-16세가 기준이며 키는 여자 153cm, 남자 165cm가 될 때까지 적용된다. 원인 질환이 없는 특발성 저신장은 성장 호르몬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이들 키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한데 수면은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 생산량과 반응성을 높여 키 성장을 돕는다.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뇌 중양에 위치한 송과선에서 분비, 빛 감지와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 멜라토닌은 빛을 받으면 억제돼 잠에서 깨고 어두우면 분비가 촉진돼 잠이 들게 된다. 기본적으로 낮에는 활발한 야외 활동으로 햇빛을 쬐고 잠 잘 때는 커튼을 쳐서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면 전에는 TV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한편, 식생활 관리와 하루 30분 이상의 적절한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키 성장에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줄넘기, 농구는 골반과 무릎 성장판을 자극해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社說

'분열의 5·18' 당사자주의 넘어 '국민의 5월'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5·18단체들의 갈등과 반목이 격화되면서 추모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80년 당시 하나 된 힘을 끼얹고 있다. 80년 당시 하나 된 힘을 끼얹고 있다. 80년 당시 하나 된 힘을 끼얹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세계 5월 단체는 지난해 공법단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내부 주도권 다툼을 극복하고 5월 정신 계승의 주체로 발돋움하리라는 지역 사회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2월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당시 계엄군으로 진압에 투입된 특전사 동지회와 '용사·화해의 대국민 공동 선언서'를 연 이후 갈등이 재연됐다. 광주 시민사회는 특전사 측의 사과나 반성, 진실 고백이 없었다며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는 두 공법단체를 제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상자회·공로자회는 특전사 동지회와 한혈 행사 및 5·18묘지 참배를 이어갈 계획을 밝혀 다툼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두 단체는 5·18행사위와 시민단체들을 불법 단체로 규정, 해체를 촉구하면서 때 아닌 '적통 논쟁'까지 벌어졌다. 그러는 사이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은 '5·18 북한 개입' 등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데도 5월 단체들은 뿔뿔이 흩어져 한 목소리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5·18단체의 분열은 신뢰와 영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다. '당사자주의'를 앞세워 5·18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을 놓은 5·18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광주시민, 국민 나아가 세계인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5·18 기념행사를 5월 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와 갈등 해소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5월 단체들이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 전국화·세계화의 중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도 외면하는 지자체 앱, 개선 방안 찾아야

광주시 자치구들이 주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앞다퉈 공공 앱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 수십만 명의 자치구들이지만 공공 앱 이용자는 수백 명에 불과하고 3년 넘게 게시 글이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 다섯 개 자치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경쟁적으로 공공 앱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공공 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차장 정보나 구청의 교육 프로그램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은 앱은 그나마 이용자가 있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 앱은 외면받고 있다.

광산구는 고려인 마을 주민과 광산구민들의 소통 커뮤니티 조성 차원에서 2021년 10억 원을 들여 '월곡 톨'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가입자 수가 128명에 불과하다. 40만 명에 가까운 광산구 인구를 감안하면 이용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광산구의 또 다른 앱인 '광산 ON'은 카풀 게시판에 올라온 마지막 글이 2019년 12월일 정도다.

남구의 '남구광'은 동네 정보 공유와 주민 알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만 운영한 지 2년이다 돼 가는데도 가입자는 863명뿐이다. 21만여 명인 남구 주민의 0.4%만 이용할 정도다. 동구의 '두드림'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기는 마찬가지다. 급기야 북구는 '안심 동행'이란 앱을 폐지하기도 했다.

자치단체들의 소통 앱이 외면받는 이유는 치밀한 수요 조사와 활용 계획 없이 구색 맞추기식으로 개발해 운용하기 때문이다.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앱 운영에 매년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지급이라도 과감하게 정리해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국 문화와 사상의 원천은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549년간 춘추 전국 시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왕조가 있었지만 130여 개의 제후국들이 난립했고, 춘추시대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거쳐 진·한·위·조·제·초·연 등으로 정리된 것이 기원전 403년이다. 전국 시대를 이끈 이들 제후를 '전국 7웅'이라 부르는데, 부국강병을 통해 약육강식의 시대를 주도하려 했다.

세력과 영토를 넓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인재였다. 다양한 학문과 학파가 등장해 제자 백가를 형성하고, 천하

있었지만, 진의 이간책과 반간계에 균근했던 연대에도 틈이 벌어졌다. 소진과 같은 소스를 둔 장의가 진을 위해 6국 제후들을 설득, 진에 따르게 하는 연횡책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뒤를 이어 범수는 원교군공(遠交近攻), 즉 멀리 있는 제후와 가깝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국가를 공략하는 방안을 내놔 통일의 기반을 닦아 줬다.

비대해진 수도권과 이를 견제하려는 부산·울산·경남, 과거 패권을 되찾으려는 대구·경북, 수도권에 더 붙으려는 충청권의 틀바구니 속에서 광주·전남·전북은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같은 뿌리를 형성했지만, 인구 감소와 정부 소외 정책 속에 각자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공유하면서 변수를 해소하고, 미래 지역 발전을 위해 결단해야 할 리더들이 자기 지역에만 매몰돼 호남 전체를 왜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오랜 가까이 있는 이웃과 강력한 일체가 돼 다른 광역권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근교원공(近交遠攻)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기고

세계 속의 5월로 꽃피우자



이지현 5·18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 시인·연극인

만장한 세월을 피눈물로 보냈다. 지속적인 형사들의 미행 탓에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만날 수조차 없었다.

어쩌다 모임에 참석할 때면 기립박수로 환영을 받았다. 축스러웠지만 폭도라는 누명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날아갔다. 그리고 자긍심을 느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

"야, 너희들이 광주 망신시킬래" "어떤 ○○이 특전사를 끌어들었냐" "이제 당사자주의를 버리고 가만있어라" "떡식물이 안 당하려면 잘 좀 해라" 등등 심지어 옥두문자까지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다. 열심히 응원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5·18을 두고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분노도 이해가 된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1994년에는 5·18기념재단 설립 주도권을 놓고 광주가 두 토막 났다. 2007년에는 도청 원형 보존을 놓고 건설회사와 밀착한 사람들에 의해 충돌했다. 그러더니 올해 2월 19일에는 특전사와 함께 '대국민 공동 선언'을 한다며 광주시민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19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했겠는가. 5·

18 유공자증을 반납하고 광주를 떠나고픈 심정이다. 일부 몰지각한 지도자들이 분방을 치다 보니 5·18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존중하고 있다. 소위 목사로 알려진 전광훈 씨는 지난해 27일 첫 집단 발표가 벌어졌던 광주역 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시민을 폄하했다. 이들의 만행은 5월이 익어갈수록 더욱 드세질 것이다.

특전사 출신들이 5월 21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또 참배한다고 한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고백도 성찰도 없이 광주에서 한혈을 한다고 하니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평화로운 시위대에 무참히 발포하고, 한혈한 여학생마저 죽인 자들이 바로 공수부대 아니던가. 특전사는 제발 진정한 사과 없이 광주에 오지도 말고 광주를 슬프게 하지 마라. 또한 특전사와 함께 또다시 만행을 저지르려는 5·18 두 단체 회장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5월은 5·18 당사자나 광주시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고 가치며 보배다. 주먹밥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여 감동을 심자. 그래야만 세계 속에서 5월이 당당하게 꽃을 피울 것이다.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details.